

기초유분, 전반적 하락세 “이번”

국제유가 상승에도 10-30달러 하락 ... 미국은 상승-하락 엇갈려

기초유분 가격은 12월2일 FOB Korea 톤당 600-900달러대로 10-30달러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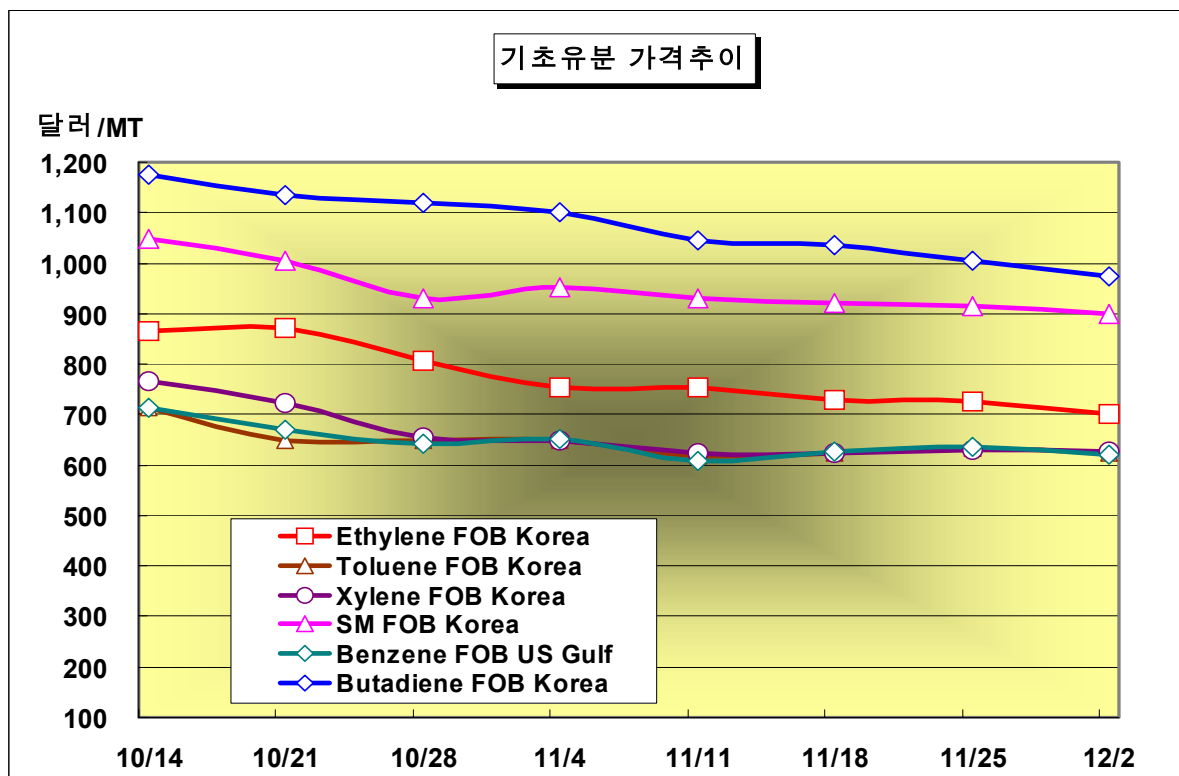
아시아 기초유분 시장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다운스트림 부문의 수요 감소와 미국 수출부진 및 유럽 등 역외권 Cargo 유입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는 12월2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59.32달러로 전일대비 0.85달러, Dubai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52.69달러로 전일대비 1.28달러 상승해 강세를 보였다.

에틸렌(Ethylene) 가격은 FOB Korea 톤당 695-705달러로 25달러 하락해 700달러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타디엔(Butadiene) 가격은 톤당 970-980달러로 30달러 하락해 1000달러대가 무너졌다.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가격은 각각 FOB Korea 톤당 619-621달러, 620-628달러, 625-630달러로 15달러, 10달러, 2달러 하락했으며 SM(Styrene Monomer)은 톤당 895-905달러로 15달러 하락해 900달러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은 FOB Korea 톤당 800-810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의 기초유분 가격은 12월2일 상승과 하락이 엇갈려 아시아 시장과 대조를 보였다.

벤젠 가격은 FOB US Gulf 톤당 639달러, SM 가격은 톤당 1080달러로 각각 30달러, 44달러 하락한 반면, 톨루엔은 톤당 569달러, 자일렌은 톤당 623달러로 각각 15달러, 12달러 상승했다.

부타디엔 가격은 CIF US Gulf 톤당 1047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12/05>